

# 성읍민속마을 전통초가 불법변경 '눈살'

### 도,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민 고발 지난해도 43건 적발... 2명은 원상복구도 거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전통 초가를 무단으로 신축·증축하거나 초가에 시설물을 불법 시공한 일부 주민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다 경찰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말 성읍민속마을 전통 초가에 거주하는 주민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통 초가 입구에 허가 없이 창틀(새시)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인 성읍민속마을은 제주지역 전통 초가가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곳으로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A씨의 집은 지난해 옛 초가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변형훼손가옥정비사업'을 받았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올해 7월 A씨의 집을 점검하려 방문했다가 창틀이 불법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증축, 신축, 개축 등의 건

축행위를 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A씨가 두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에도 창틀을 철거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성읍민속마을 내 불법 건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성읍민속마을에서 무단으로 증축 또는 신축된 43동을 적발해 주민 5명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당시 무단으로 신·증축된 건물 대부분은 판매용 창고시설이었다. 이중 주민 3명은 불법 건

축물을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2명은 끝까지 버티다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9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옛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984년 마을이 최초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을 당시 모습과 현재의 마을 모습을 비교하는 실측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허가 받지 않은 무단 건축물이 발견되면 모두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성읍민속마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은 79만 4000㎡이며 남아 있는 전통초가는 740여동이다.

이상민기자

# 내년 '누리과정' 어떻게 달라지나... 유아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 일선 "전문성 강화에 지원"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이 유아 놀이 중심으로 달라진다. 현장에선 새롭게 바뀐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적용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강조점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다. 교사의 주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해 놀이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내용 구성을 줄여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교사가 지나치게 활동을 이끌지 않도록 일일교육 계획 수립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현장에선 누리과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유아의 놀이를 통해 배움을 지원하는 주제인 교사의 역할에 따라 놀이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교육부가 교사 연수(집합연수 1일 8시간, 원격연수 15시간)를 진행하고 교육과정 해설서 등을 보급하기로 했지만 단기간에 교

사 전문성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 화북에 있는 한 유치원 원장은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다음 확장 활동을 찾고, 그것을 통해 교구나 자료 등을 제시해 주는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데 교사들의 역량이 따르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라며 "신규 교사가 대부분인 곳에선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유치원 원장은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즐거움을 키우는 유아교육 본연에 접근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너무 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잘못하면 방관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첫해는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차츰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삼양초등학교·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정 누리과정 연구 유치원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현장 적용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2020년 교육공무직 채용 조리사 등 9개직종 148명

제주도교육청이 2020년 제1회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9개 직종에 14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종별 채용 인원은 조리사 14명, 조리실무사 35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57명, 돌봄전담사 21명, 특수교육실무원 11명, 행정실무원 7명, 교육업무실무원(과학) 1명, 치료사 1명, 외국어교육실무원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채용부터 모든 직종에 인성평가를 도입하고, 일부 직종(특수교육실무원·조리사·조리실무사)은 체력인성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에 평가를 위탁해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다.

김지은기자



"내가 꾸민 크리스마스 감귤 예쁘지요" 10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감귤을 선보이고 있다. 귀여운 이모티콘 스티커와 작은 봉투가 들어있어 스티커로 꾸민 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준비했다.

# 서귀포시 방과후학교 특화 프로그램 호응 2012년부터 시작... 올해 67개교서 341개 프로 진행

서귀포시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몫 하고 있다. 정규수업과 차별화되는 300여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시 70개 초·중·고 중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일 '2019년 제11회 방과후학교대상' 지역사회연계·협력(지방자치단체) 부문서 우수상을 받았다. 방과후학교 대상은 매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삼성꿈장학재단·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해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의 발굴·확산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상이다.

시는 그동안 산남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2012년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고 매년 30억원 이

상의 예산을 방과후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규수업과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2년부터 관내 70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감사비와 교재·재료비 등으로 78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7년 64개교 223개 프로그램에 8억4500만원 ▷2018년 68개교 301개 프로그램에 10억원 ▷올해 67개교 341개 프로그램에 1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68개 학교가 신청한 상태다.

프로그램은 방과후 영어교실에서부터 오케스트라, 스마·윈드서핑 교실, 컴퓨터와 코딩, 커피직업 능력개발반, 심층영어·수학 탐구반 등 교과·비교과를 총망라한다. 문미숙기자

# "환경부-국토부는 밀실협의 그만두라" 제2공항 반대위 서울 광화문서 기자회견

국토부가 진행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제

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와 국토부 밀실협의의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환경부가 보완의

견을 송부한 지 33일만이다.

이들은 "한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보완, 그리고 또 한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완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간이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부는 주요 정보를 공개하며 밀실협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12월 중 조건부 동의가 내려진다면 환경부장관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부미연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으로

### 제9회 제주 수출인의 날

[유공기업]  
수출우수상 (주)제이아이엠, (주)제주원푸드  
수출장려상 (주)송이산업

[유공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상해대표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동경통상대표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재상하이제주도민회  
천희려원(베이징)투자공사  
(주)유앤아이제주

### 제56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3백만불탑 (주)웨이나코리아  
1백만불탑 해마수산(영)트레이드앤트레이드(주)핀테크코리아(주)프레스스Dermagics뷰티팩토리

[유공포상]  
제주특별자치도청 장철원 팀장  
제주대학교 이봉규 교수  
(주)에코제이푸드 정석환 대표

♣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Jeju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무역협회